

# 금성강단

발행인 : 이성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금성교회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로10길 5-3

전화 : 2661-1045, 1004, 1009

팩스 : 2662-0206

홈페이지 : [www.kumsung.org](http://www.kumsung.org)

## 교회표어

성령의 충만으로 증인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된다.

(행 1:8)

부제 :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마 5:13-14)

## 목회방향

1.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고,
2.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3. 성도들이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4.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인.

## [2020년 9월 6일 금성교회 주일예배설교]

본문 : 마 5:4, 느 1:1-11

제목 : 애통하는 사람 · 위로하시는 주님(1): 느헤미야  
“그리고 이 일이 있었다”

말씀 :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마 5:4)

※ 매주 발간되는 금성강단은 주일 낮 예배 설교입니다.  
이 소식지를 통해 주님을 더 잘 알기 원하시는 분이나  
다른 분에게 보내고 싶으신 분은 금성교회에 연락해 주  
시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전** 임 전도사까지 포함한 목회사역을 지  
금까지 약 37년간 하면서 수많은 장  
례를 집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많  
은 장례식을 참관하기도 했습니다.  
기억에 떠오르는 많은 장례식이 있습니다. 가  
슴을 아프게 한 장례, 눈물을 흘리게 한 안타  
가운 장례, 소망과 웃음을 갖게 한 아름다운  
장례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9월의 목회  
주제 <애통하는 사람들 위로하시는 주님>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를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  
는데 계속 잊혀 지지 않는 장례식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목사로 안수 받았던 부목사 초년 시절에 아마  
1985년 여름으로 기억이 됩니다. 섬기던 교구  
성도님 아들이 군에 입대해서 군 생활을 한 6  
개월 정도 하던 때였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주  
변 마을에 큰 홍수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제방  
에 독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군인들이 동원  
이 되어서 마을의 안전을 위해 작업을 했습니  
다. 그런데 작업 중에 독 일부가 터져서 이 성  
도님 아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대전 현충  
원 국군묘지에 안치시키는 장례식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10명 정도 되는 합동장  
례식이었습니다. 고인의 영정이 앞에 놓여있고  
유족 대표 한분씩 고인의 영정 앞에 헌화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 본 이후로 지금까지 정말 잊혀  
지지 않은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이가  
한 70이상 된 마른 노인이 영정의 사진이 고  
인의 아들인지 손자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영정 앞에 헌화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분이  
자리로 돌아가는 동안에 주변은 매우 적막했  
습니다. 그 적막한 시간에 돌아서서 흐르는 눈  
물을 연신 하얀 장갑을 낀 손으로 닦아내면서  
약간 쓰러질 것 같으면서도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정말 슬퍼서 우는 모습  
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 모습이 애통의 모습이구나, 그  
런 생각이 가슴에 짝 새겨졌습니다. 저는 지금  
까지 그런 애통의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 노인이 왜 왔을까? 고인의 부모는 없는 것  
일까? 왜 저 노인이 헌화를 했을까? 등등 그  
런 생각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애통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라고 하셨으니 그 분이 주님을 믿  
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나 위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장면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분명히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이즈음 우리가 처해 있는 주변의 상황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합니다. 올 2월부터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한 수많은 고통들, 코로나19를 잘 대처하지 못한 교회들로 인하여 오는 비난들, 나라의 정치적인 혼란과 백성들의 경제적인 고통들, 모범을 보여야 할 지도자들의 모범적이지 못한 모습들, 많은 피해를 준 장마가 물러가더니 연이어 다가온 태풍 마이삭으로 인한 피해가 큼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신설된 초강력 태풍으로 1호로 기록될 10호 태풍 하이선의 위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의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교회들이 이런 때 무엇을 해야 하고 하나님은 이런 고통스런 현실을 통해서 이 땅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가를 고민했습니다. 그런 고민 끝에 9월의 묵회 주제를 <애통하는 사람들. 위로하시는 주님>으로 묵상 말씀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마5:4)로 정했습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금성교인들이 애통하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위로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까?

이 본문은 주님이 산상보훈의 첫 부분인 8복 가운데 두 번째 복의 내용입니다. 산상보훈은 주님이 산위에서 제자들에게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천국시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가에 대하여 가르친 말씀입니다. 천국시민의 삶의 자세를 가르친 말씀입니다.

그 중에 8복은 천국 문에 들어가는 8가지 계단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는 자는 이 계단에서 말하는 모습들이 삶속에 나타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8복중 두 번째 복인 9월의 주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주님이 선포한 원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들이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 <복이 있도다.>란 단어는 <마카리오이>입니다. 복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세속적인 복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 것은 성삼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영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천국시민만이 누리는 지고의 행복을 말합니다. 그 복의 내용은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는 원어는 <파라클레테손타이>입니다. <파라칼레오>의 <미래수동형>입니다. <파라칼레오>는 <자기 곁으로 부른다.>란 의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애통하는 자들의 곁으로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위로는 세상 사람처럼 격려나 말로 감정적으로만 위로하는 것만 아니라 회복과 구원의 은총까지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전 주에 드린 주님의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시신에게 향품을 바르려고 준비하고 갔는데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시신이나 향품을 바르려 했는데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그 상실로 인하여 마리아는 계속 빈 무덤을 보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애통의 눈물을 계속 흘렸습니다.

주님은 마리아의 그 애통의 마음을 위로하셨습니다. <파라칼레오>는 <자기 곁으로 부른다>의 뜻입니다. 주님은 이미 곁에 오셔서 마리아야 하면서 마리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모습으로 위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전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번민이 가득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애통하는 자들에게 이런 위로를 선포하셨습니다. 한글 번역은 <애통하는 자>라고 단수로 되어 있지만 원문(펜둔데스)은 남성복수형입니다.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펜둔데스>의 의미는 <심히 근심하며 고통스럽게 슬퍼하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다>. <자탄하다>입니다. 이 중에 <심히 근심하며 고통스럽게 슬퍼하다>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에 스스로에 대한 애통입니다. 또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다> <자탄하다>란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에 대하여 애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일까요?

4가지 범주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자기 자신, 2)식구와 특히 자녀들, 3)사회와 국가, 4)교회에 대한 애통입니다. 앞으로 4주에 걸쳐서 이 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애통하는 사람이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나라와 특히 교회에 대한 애통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생활에 끌려갔지만 그 곳에서 입지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포로였지만 왕의 신임을 얻어서 술 맡은 관원이 되었습니다. 대단한 성공의 모습입니다. 11절 끝부분 “그 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를 공동 번역은 “그때 나는 황제에게 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고 있었다.”로 번역했습니다.

당시에 술 관원은 왕의 음식을 맛보는 일과 왕의 침실을 맡아 보는 일과 더불어 경호까지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고대사회는 왕이 마시는 술이나 음식에 독을 넣어서 살해하는 경우가 있기에 술 맡은 자리는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어야만 가능했습니다. 이런 술맡은 관원은 고대 왕조인 아키아메니드(Achaemenid) 시대에는 군사지휘관인 총사령관 보다 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내던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BC445년 기슬르월: 11~12 월)에 그의 형제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로부터 오게 됩니다. 얼마나 보고 싶은 만남의 시간입니까? 그들에게 느헤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 물었습시다. 그들로부터 들은 소식입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고통의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 때 그 사람이 취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나갈 때는 모릅니다. 고통의 때에 취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을 알게 됩니다. 기가 막힌 상황을 듣고 느헤미야가 취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본문4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자마자 그리고 이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나는 주저앉았고 수일 동안 울고 곡하

였다. 금식하였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가슴 아픈 소식을 듣자마자 느헤미야가 취한 태도가 바로 애통입니다. <애통하다: 펜둔데스>는 <심히 근심하며 고통스럽게 슬퍼하다>.란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느헤미야는 기가 막혀서 주저앉았습니다. 수일 동안 울고 곡했습니다. 비통한 마음으로 울부짖었다는 말입니다. 금식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란 표현은 하늘과 땅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상대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애통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그는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공물을 베푸는 주로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언약을 지키는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공물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좋게 만드는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 19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주변의 상황도 공물에 풍성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너무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양심의 가책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애통의 회개기도를 했습니다. 애통의 의미는 양심의 가책과 자탄의 마음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아버지집이 범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모세에게 명한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셨다고 고백했습니다. 흩어진 것에 대한 영적인 해석입니다. 코로나 19에 대한 애통하며 기도하는 교회들의 영적인 해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인류는 한 가족으로서 사랑을 해야 하는데 좀 더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공교회로써의 사회 속에서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는 아닌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했습니다.

범죄 했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한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이니 것을 기억해 달라는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택한 백성이니 버리지 마시고 은총을 입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11절 마지막에 이 말을 넣었습니다. “그 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말을 왜 기록했을 까요? 이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주어야 자신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며 모든 것을 회복하는 힘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들을 통해서 오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는 원어는 <파라칼레오>의 <미래수동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파라칼레오>는 <자기 곁으로 부른다.>란 의미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미래에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애통하는 자들의 곁으로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심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말로 감정적으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의 은총까지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3-4개월 후에 위로를 하셨습니다. 왕이 느헤미야를 곁으로 불렀습니다. 술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느헤미야는 왕의 도움을 입어서 52일간 특별 휴가를 얻게 됩니다. 요즈음 모 장관의 자녀의 과거의 군복무 중 휴가기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52일 간의 휴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 기간에 느헤미야는 고국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애통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는 은총을 하나님은 입혀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들리는 소식들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힘들게 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나라가 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일상이 통제가 되고 경제사정은 정말 힘듭니다.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많습니다.

지난 달 30일 안양평촌동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던 자매가 업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는 보도가 중앙일보에 실렸습니다. 동생은 목숨을 건졌지만 언니는 끝내 숨졌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채무에 대한 부담감 등이 적혀있었습니다. 이 업소는 지난 5월부터 행정명령으로 문을 열지 못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만 아니라 우리나라 혼란스러운 정치 현실, 지도자들의 위선된 모습들, 점점 깊어지는 진영 간의 대립 등 그리고 장마와 계속되는 태풍으로 인한 자연 재해들과 특히 교회들은 생명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에 깨어 있는 한국의 교회들과 성도들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리고 이 일이 있었다.” 그런 어려운 소식을 듣자마자 “정말 마음을 찢으면서 애통하는 기도가 있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기도를 할 때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눈물 흘리는 한국 교회를 부르시면서 반드시 미래에 소망과 위로의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애통하는 사람들은 늘 기도를 먼저 합니다. 왕에게 아뢰기 전 도와 줄 사람을 통해 도움 받게 해 달라는 기도가 먼저입니다. 나라와 동족의 자신의 잘못으로 생각하고 심히 고통하고 근심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일로는 올 일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울면서 애통의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 아무런 고통이 없다고 이 모든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애통하는 성도들은 민족의 아픔과 교회의 아픔과 백성의 아픔을 같이 지고 가는 자들입니다. 지금 당하는 민족적인 여러 고통의 원인을 나와 내 아버지 집과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한 것을 고백하면서 애통의 기도를 교회와 성도들은 해야 할 때입니다. 전주부터 교역자 직원들은 매일 오전 5시30분-6시까지 교회에서 개인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내어서 애통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반드시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훗날에 한국교회와 금성교회 성도들이 나라가 여러 가지로 고통스러울 때 <그 소식을 듣자마자 울면서 기도하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주님의 위로로 회복이 되었다는 평가를 들을 수가 있는 성도들이 될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